

“무주군민을 행복하게”

오늘 민선7기 제 45대 황인홍 무주군수 취임

민선 7기 무주군을 이끌고 갈 제45대 무주군수 황인홍 호가 7월 2일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위한 항해를 시작한다.



록 '세계적인 으뜸관광' 실현에 주력한다. 각 읍면 특색을 살린 개발을 진행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 그에 따른 관광수익도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건강가득 소득농업'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작목과 농법을 적용한 무주만의 경쟁력으로 승부하겠다는 내용으로, 반딧불농산물에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가들의 영농비 부담은 영농자재와 농기계 반값 지원제도를 통해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함께하는 주민복지'를 통해 주민들 삶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으로 개인별, 연령별, 상황별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간다. 특히 응급실 기능 보완 등 보건의료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과 어르신들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돕기 위한

행복카드제도 도입, 복합문화공간 개념의 도서관 건립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맞춤 특색개발'은 6개 읍면의 불거리와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특색 있게 개발하고 건강과 행복을 아우르는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며 열린 군수실 운영과 교육위원회 설립, 시민단체 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움직이는 자치행정'도 실현할 방침이다.

이외 군수 직속 무주미래준비팀을 구성해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 프로젝트도 추진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과 농업, 작목변화 등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무주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발행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민선7기 제45대 무주군수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관내·외 기관 사회 단체장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명품수박 노지터널 차광망 지원

진안군, 진안 주소지 수박 재배 작목반·농가 대상

진안군은 지난 29일 명품수박을 만들기 위해 수박 노지터널에 차광망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안에 주소지를 둔 노지수박을 재배하는 작목반과 농가이며, 총 225ha 규모의 노지터널용 차광망

(가로 60cm, 55% 차광)를 지원한다. 수박 재배 후기에 터널에 차광망을 씌우는 노지터널용 차광망 지원사업은 수박의 데입 현상과 고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수박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 짙

이나 수박 잎으로 수박을 가리던 것을 차광망으로 대신함으로써 노동력을 30%이상 절감할 수 있다.

수박재배 노지터널용 차광망은 내달 11일부터 가까운 농협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환경농업대학을 통해 수박 재배기술을 한 차원 높이고, 6~7월에는 노지터널용 차광망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명품 진안고원 수박을 생산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종합복지관, MOU체결

무주군은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사장 박희숙)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이 지난 28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주종합복지관 집단활동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두 기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위원 위촉을 통한 자문단 구성 및 사업 모니터링 △장애인 인턴십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두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서로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치유·사회적 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향후 무주군 지역에 창출될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초등학교학생들은 지난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불법주정차 하지마세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엄마아빠 불법주정차 하지마세요”

장수초교 주제중심학습 일환, 7월 5일까지 캠페인 펼쳐

장수초등학교(교장 서길주) 학생들은 지난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주제중심학습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하지마세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제중심 학습의 이번 주제는 '지역문제 해결'로 장수초등학교 학생들이 바라보는 가장 필요한 지역문제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자율적으로 입간판을 만들고 어른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을 포박포박 손글씨로 작성해서 실제 학교인근 불법주정차 차량에 붙이는 등 팀을 이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또한 학교 인근 군청과 농협 등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어른들에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각시키고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등 야무진 캠페인 활동에 어른들의 웃음과 함께 무엇보다 큰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강승철군은 “어른들 불법주정차로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하게 됐다”고 참여동기를 말했다.

정환기 교사(5학년 담임)는 “학생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이 어른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캠페인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

아나바다 행복나눔 장터 열려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오영하)는 지난 30일 의안공원 야외공연장에서 2018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 행복나눔 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주민들에게 첫째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팔아 용돈을 버는 즐거움, 둘째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는 즐거움, 셋째 각각 각색 물건을 구경하고 흥정하는 즐거움, 넷째 기부하는 즐거움, 다섯째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의 즐거움, 오감의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재활용갑활용 화분 만들기, 페트병 활용 세습기 만들기, 옷걸이를 활용한 바나나걸이 만들기, 심을 활용한 매듭팔찌 만들기, 소프넷 천연세제 만들기, 가족티셔츠 만들기 등 재활용 부스를 운영해 환경 보호 실천에도 앞장섰다. 또한 이날 판매금액 40%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오영하 센터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해 물건 재사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도 보호하는 대안적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하는 즐거움도 전해 줄 수 있는 아나바다 행복 나눔 장터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

조립지 가꾸기사업 현장연찬회

진안군은 지난 29일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조림목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립지 가꾸기사업 현장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황상국 환경산림과장 등 군 관계자와 산림조합, 작업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립지 가꾸기사업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현지 지도도 병행해 사업 품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군은 올해 1,125ha의 조립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약 15억원을 투입하여 어린 조림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풀과 잡목, 덩굴류를 제거하는 조립지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조립지 가꾸기 사업을 통해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여름철 작업장 안전에 유의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작업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고향사랑장학생 선발 공고

오늘부터 13일까지 공고, 16일~ 31일까지 신청·접수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항호)은 올해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장학생 선발을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6일부터 31일까지 장학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고향사랑장학금이란 진안군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2018년 대학 신입생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학금은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 관외로 나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 /진안=우태만 기자

2018년 1월 1일 현재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안군민 또는 그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관내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진안군청 행정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은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063-430-2514, 2231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